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여 홍 기
(呂洪基)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학예연구사

Ⅰ. 백제권종합개발계획이 태어나기까지

고대 동아시아 속에서 정치·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활을 담당했던 백제는 그 찬란한 당대의 소산물이 패망과 함께 멸실됨에 따라 기록의 희소와 자료부족의 한계로 인하여 백제사 연구는 물론 문화유적 복원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던 중 공주 무녕왕릉 발굴은 한국고대사 연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대단한 사건인 동시에 백제문화의 실체를 벗기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부여 능사의 금동대향로와 사리감 발굴은 세련된 생동감과 풍부한 상상력, 넉넉한 표현으로 백제 조형미의 정수로서 백제예술이 세계 최고의 미적 수준을 갖추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는 마치 1300여년전 백제의 혼이 부활하듯 잃어버린 백제복원의 시위를 다시 한번 힘껏 당겨 주었다.

이처럼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족 전통문화 계승과 미래 지향적인 문화자원 개발의 터를 마련코자 국가의 원대한 사업으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을 확정하게 되었다.

백제문화권종합개발은 그동안 5대 고도 문화권 정비계획에 의해 백제문화권 개발이 추진되어 왔지만, 단순이 문화유적 정비에 그침에 따라 백제고도 문화권 영역인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역사 문화권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백제문화 복원 및 재현과 관광·휴양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여가공간 및 국제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함이며, 91년 백제문화권종합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 94년에 문화유적 정비복원, 관광자원개발, 도시기반시설, 도로교충망 확충, 계룡지구 개발 등 5개 분야 55개 사업을 확정하여 2001년까지 사업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된다.

Ⅱ.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계획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중 가장 핵심사업은 그동안 백제역사 탐방의 목적형 관광성향을 극복하고 고도화 다양화된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하고자 백제문화를 중심 주제로 하는 관광요건 확충과 위락·휴양 기능을 강화하여 체류형 관광형태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시설, 상업시설, 교육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복합단지화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다.

단지조성은 옛 백제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부소산, 낙화암, 왕흥사 등이 조망되는 백마강 북쪽 안자락(행정구역상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 교육의 장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20만평 규모에 역사재현촌 30만평, 연구교육촌 20만평, 기타 녹지, 휴게공간으로 구성된다.

사업추진은 1994년에서 2001년 까지 1,674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전통 역사문화 자원이라는 특정 문화자원 개발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자본을 절충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

단지는 〈표 1〉과 같이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전통 재현시설

〈표 1〉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공 간	기 능
백제역사촌	개국촌	백제개국촌의 생활상 재현
	왕궁촌	백제왕도 입지와 모습 재현
	전통민속촌	백제마을 및 주변환경 재현
	군사통신촌	백제군사시설 재현
	장제묘지촌	백제전통장제 및 묘제 재현
	산업교육촌	전통산업 발달과정 재현
	풍속교육촌	전통풍습, 민속놀이 등 행사 개최
	백제의 숲	백제조형물 전시 및 휴식공간시설
	전통운동시설지	전통운동 체험공간
	백제역사민속박물관	백제역사와 문화의 종합전시
연구교육촌	교육시설	문화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종사인력 훈련
	연구시설	백제공예 연구활동 및 백제문화유적 연구활동
	예술인마을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제공
	주거편익시설	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 주거, 정보센터, 국제회의장 시설

중심의 백제역사촌과 전통문화 연구시설 중심으로 구성되는 연구교육촌으로 크게 대별되며, 백제역사촌은 백제문화유산을 철저한 역사고증을 통한 실물 재현으로 옛 문화의 정취를 느끼는 분위기 재현과 관광객의 선택 취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법을 응용한 현대적 감각의 조화를 이루면서 본 단지의 주제와 이념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시설구성은 백제역사를 관광객의 이해와 체험에 용이하도록 물리적 표현방법에 따라 개국촌, 왕궁촌, 전통민속촌, 군사통신촌, 장제묘지촌,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및 백제역사민속박물관 등을 각 기능별로 설정하여 밀도있게 집중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왕궁촌은 백제역사촌내 가장 핵심 시설로서 부여 사비성을 모델로 하여 사비왕궁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단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체 기능촌을 관장 하도록 한다. 건축물 복원은 백제 사비시대 궁궐터로 유력시되는 관북리 일대의 유적발굴 상황과 지형을 고려하여 고대 동아시아의 궁궐건축 양식과 전각 구성을 비교·검토하여 고증된 사비궁을 추정·복원하되 단지 전체 규모를 감안하여 고증에 의해 복원안이 제시된 조당원, 정전, 침전지역 가운데 궁궐의 중심으로서 주요 국사를 집행하던 정전 구역만 복원을 시도하여 당시 건물배치와 건축물 양식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

전통민속촌은 왕궁촌 전면부에 조성하여 사비궁의 보조기능과 각 기능촌을 연결시켜 부합되도록 다양한 시설로서 백제인의 생활상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관광객의 중요 교육과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시설은 사비성의 5부 5방의 도성 방리제를 취하여 백제가옥, 사찰, 정원, 원지로 구성된 백제마을을 배치하도록 하되 백제가옥은 신분별로 주택유형을 분류하여 궁남로 우측에 문관가옥과 서민가옥을 좌측에 무관가옥과 중인가옥을 배치하고 이들 주변에 농·산촌가를 무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어우러지도록 한다. 남쪽 진입부는 백제 원지, 정원, 누각 등을 배치하여 백제의 조경술과 다양한 수종을 감상하는 휴식공간으로서 단지 전체의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백제사찰 복원은 단지 동편에 능산리 능묘와 관련하여 백제왕이 제를 지낸 신궁을 겸한 능산리 능사 발굴결과를 토대로 완전히 복원하여 백제사찰 건축의 기법과 양식 및 백제 불교문화를 보여주게 된다.

한편 왕궁촌 좌·우측 위요공간은 백제의 시작과 끝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개국촌과 장제묘지촌을 시설하게 된다.

개국촌은 백제개국 당시의 상하층민의 정치, 군사, 경제활동을 재현하게 된다. 주거 시설은 지배층의 내전, 정청, 관청 등으로 구성 독립가옥을 중앙에 배치하고 거주민과 관련된 수혈 주거지 고상가옥을 배치하고 둘레에 토성, 목책, 망루 등을 복원하여 당시의 방어시설을 일별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대시설로 성내의 외곽지역에 야철지와 토성 외

부의 농경지를 복원 배치하여 철기문화수용과 농경생활상을 표현하도록 한다.

장제묘지촌은 한성, 웅진, 사비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를 선정하여 적석총, 석실분, 석곽분, 전축분 등은 축조기법이나 부장품을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개방하고 옹관묘, 토광묘, 전곽묘 등은 발굴당시의 모습으로 현장 복원을 추진하여 묘제축조기법과 출토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부 관람과 출토 당시의 모습을 통하여 당시 사회풍습과 문화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군사통신촌은 사비궁 후원에 군사통신시설과 전장구를 시설하고 토성 일부를 절개하여 성벽 축조기법을 보여주게 된다.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은 백제의 숲을 두고 전통문화 탐방 공간과 분리시켜 먹거리, 쉴거리, 볼거리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광객의 흥미유발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교육촌은 백제시대 이래로 전해오는 농업, 공업, 상업의 발달과정을 제조, 판매하고 전시시설을 통하여 재현하는 장소로서 전통공방은 농기구, 생활용구, 건축재, 신변장신구 등을 제작하여 전시판매와 특히 관광지 조성, 도시환경 정비 등의 특수용도 자재공급처로 활성화시키며 향토 특산물 매장은 일반 관광지와는 다른 특색있고 차별화하여 농원, 민속시장, 교역품전시장 등을 조성한다.

풍속종교촌은 백제시대 이래로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 재현을 통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공간으로서 상시개방하여 연간 공연상영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역사재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수적 관념을 탈피 백제문화를 주제로 하여 교양적이며 문화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첨단 유객시설인 하이테크 멀티미디어 공연, 인터페이스 회전극장, 전통무술극장 등을 민가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은 고증·조사 연구결과, 성격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백제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백제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백제역사문화의 종합전시기능, 교육기능, 조사연구기능을 갖춘 종합박물관으로 조성된다. 주요 건축공간 구성은 전시실, 조사연구실, 보존복원실, 백제교육실, 백제자료실, 부대시설로 이루어진다. 전시 공간구성과 전시연출은 출토유물을 분류사적으로 전시하는 기존박물관과 차별화하여 백제사의 갤러리를 도입부, 백제생명의 장, 백제도와 성의 장, 백제생활의 장, 백제표현의 장, 백제정신의 장, 백제교섭의 장 등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하고 모형, 디오라마, 매직비젼,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동원하여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어 진다.

연구교육촌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연구와 학술교류의 장으로 흥미나 위락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이용객들에게 기능상 편리하도록 기능위주의 공간으로 구성, 역사재현촌과는 진입공간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교육활동,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부대시설 등이 중심 요소로 구성된다.

교육시설로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통문화대학을 설립하여 전통문화정책, 고고학,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교육·연구하게되며, 관광개발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종사자 훈련원을 설치한다. 연구시설로는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굴, 복원, 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될 문화유적 연구 센터와 전통공예품을 연구 또는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예연구소가 조성된다.

특수시설로서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으로 하여금 창작활동에 집중하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갖도록 한다.

부대시설로 주거시설, 스포츠센터, 국제회의장, 정보기기센터 등을 단지 주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과 백제역사문화를 계승, 연구, 창작을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 역활을 하게된다.

Ⅲ.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대한 소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라는 잠재적 문화자원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관광개발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연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기본구상이 이루어지고 백제 역사문화의 재현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국민교육의 장을 함축적 공간에 조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참신한 개발구상과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역사문화 자원개발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역사적 과오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단지조성에 따른 각 기능별 사업추진 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즉 단지조성은 역사, 자연, 관광 등의 복합요소를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교육문화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러나 시설 가운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되 먼저 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공공시설 및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을 선행·추진하며 특히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은 단지의 핵심시설로서 백제역사와 문화를 총 망라하여 전시하는 종합박물관으로서 풍부한 전시내용,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구성되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의 목적과 취지가 결집된 상징적 사업이자 단지조성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추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지 기반시설 완료, 공공시설,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 부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성숙된 제반 여건의 마련과 함께 교육문화 시설 일부와 상업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오락시설 조성을 추진하여 단지의 보조·연계 기능을 완료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제역사 전통재현시설에 해당하는 개국촌, 왕궁촌, 전통민속촌, 조사통신

촌, 장제묘지촌의 5개 기능촌 조성으로 지속적인 역사고증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설지이다. 실제로 당초 기본설계에 의해 구상된 재현시설이 백제역사 고증 조사연구를 거치면서 전면 검토·보완하여 재조정되었다. 이는 각 분야별로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성과와 그동안 고고학적 신자료의 출현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증조사 등이 연구되어 자문과 검토·재현하는 시설일지라도 현 시점에서의 분석결과일 뿐 이므로 앞으로 새로운 고증연구가 이루어지면 재현시설의 일부가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5개 기능촌 시설조성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재현을 시도하고 또한 전통 재현시설의 건축, 복원, 전시과정을 국내 최초로 관광객에게 공개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로서 단지조성 취지에 맞는 교육과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단지의 정체성 극복에 따른 투자효과의 극대화이다. 단지내 시설은 전통문화재현부문 + 교육연구부문 + 관광휴양부문 등 다기능, 다용도의 집약형 관광개발 구상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미래 지향적 관광개발 형태이다. 그러나, 전통적 이미지와 특징성이 강조되는 개발방향이 자칫 민간자본 투자여건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인위적인 전통문화시설 재현이라는 보수적 관념이 국민적 정서와 국제적 관광 성향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지 하는 철저한 분석과 국내 유사시설이 갖는 보편적인 정체성을 극복하고 개성화, 전문화, 다양화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재원 확보와 투자효과를 얼마나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결부된다. 현재 단지조성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부문과 사업성이 강한 시설부문을 재원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재원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업추진이 막대한 재원부담으로 다소 지연되거나, 민간자본의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화되어 민간자본 투자가 위축되거나 여건조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 관·민의 연계체계를 구축, 효율적인 투자방식 모색,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주변연계 관광기능 조기완료,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통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으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은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행정당국의 일체화된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흔히 관광산업은 정부나 국민의식이 한결같이 과중한 초기 투자비 부담에 비해 불안정한 수요로 인하여 정책적지원과 개발참여에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관광의 정점으로서 백제문화유적, 자연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적보존과 개발의 상충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을 통하여 지역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재정확충 등 유·무형의 개발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이루려면 개발효과, 개발의지, 개발조건의 공통분모에 대한 각기 역할분담이 필수요건으로 본다.